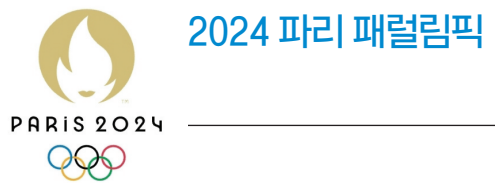


광주·전남 선수들 값진 땀방울 메달로 보상 받았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광주시청 탁구팀, 남·녀 복식경기서 서수연 은·박진철 동메달 이윤리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서 은...한국에 첫 메달 안겨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들의 메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 출신의 서수연(광주시청)과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소속 박진철이 탁구 복식에서 활약하며 메달을 추가했다.

서수연-윤지유(성남시청) 조는 지난달 31일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치러진 W5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W5 여자 복식 준결승에서 브라질의 카타이 올리베이라-조이스 올리베이라 조를 세트스코어 3-0(11-6 11-9 13-11)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서수연-윤지유 조는 중국의 류징-쉐위안 조와 맞붙은 결승에서 세트스코어 1-3(7-11 7-11 11-8 9-11)패하며 2위에 올랐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첫 복식 파트너가 된 서수연과 윤지유는 이번 대회로 세 번째 패럴림픽 출전을 기록했다.

지난 2016 리우 대회와 2020 도쿄 대회에서 총 4개의 메달(은3, 동1)을 획득했던 서수연은 이번 패럴림픽 여자 단식에서 시상대 정상에 오른다.

윤지유 역시 2016 리우 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 2020 도쿄 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과 개인전 동메달로 금메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또 박진철(광주시청)-차수용(대구시청) 조가 MD4 남자 복식 준결승에서 슬로바키아의 피터로 바스-안 리아포스에 세트스코어 2-3(12-10 7-11 8-11 11-7 10-12)으로 지면서 동메달을 확정했다.

패럴림픽 탁구 경기에서는 3·4위 결정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에서 패한 두 팀이 동메달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펼쳐진 MD4 남자 복식 8강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0(13-11 11-4 11-8) 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박진철은 지난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남자 단식 클래스2 결승에서 차수용과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게임 단체전 금메달과 2020 도쿄 패럴림픽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하기도 했다.

탁구 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대표팀은 1일 단식 경기에 돌입했다.

한편 사격에서는 전남의 이윤리(완도군청)가 파리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2008 베이징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윤리는 지난달 30일 사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R2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 SH1 결선에서 총점 248.8점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이번이 5번째 패럴림픽인 그는 23번째 발까지 2위 아바니 레카라(인도)를 0.8점 차로 앞섰으나 마지막 24번째 발에서 10.9점 만점에 6.8점을 쏘면서 2위를 기록했다.

이윤리는 오는 3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주종목인 R8 여자 50m 소총 3자세 SH1 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022 창원 장애인사격월드컵 R8 여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461.1점으로 종전 결선 신기록(459.4점)을 넘으며 세계 신기록(461.1점)을 경신했으며 2008 베이징 패럴림픽·2010 광저우 패러아시아게임 이 종목에서도 각각 세계 신기록·아시아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난 30일(한국시간) 서수연(오른쪽·광주시청)-윤지유(왼쪽·성남시청) 조가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W5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는 지난달 30일 페퍼스타디움에 팬들을 초대해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훈련도 보고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행복한 하루 됐어요”

페퍼스 오픈 트레이닝 진행



‘아시아권 1순위’ 장위가 팬에게 사인하는 모습.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홈구장에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페퍼스는 지난달 30일 페퍼스타디움에서 120여명의 멤버십 팬들을 초대해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선수단은 이날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본기 훈련을 실시한 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2개 팀으로 나눠 자체 연습 경기를 진행했다. 주전 선수 없이 모든 선수를 두루 교체하면서 실전 훈련을 했다.

관중석을 메운 팬들은 구슬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에 열띤 환호로 응원을 보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수현(26)씨는 “원래 배구를 좋아했다. 배구단 연구지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광주를 연구고 한 배구단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 가지게 됐다”며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어떻게 감독님과 팀에서 훈련을 하는지 궁금했다. 이번 2024-2025시즌 ‘탈꼴찌’를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연승을 했는데 최

소 3·4연승은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4개 그룹으로 나눠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토타임을 가졌다.

성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노진씨는 어린 딸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

그는 “배구에 문외한이었는데 페퍼스 창단 시기에 우연히 하혜진의 우아한 스파이크 자세를 보고 ‘입덕’했다. 홈-어웨이 경기를 보러 다니면서 일상 스트레스도 풀리고 팬심도 커졌다”며 “3년 동안 꾸준히 봐왔는데 선수들 훈련하는 걸 보니 확실히 코트 안에서 좋은 시너지가 느껴진다. 장소연 감독이 구단을 맡은 게 제일 큰 것 같다. 딸과 함께 오니 더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소연 감독은 “최근 전지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남지 않은 V리그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선수들이 경기력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팬들이 현장에서 응원을 보내주시 확실히 나도 선수들도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



제 2회 송원대 총장기 생활주짓수대회 개최

주짓수 거점 대학으로 도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가 대한주짓수회(회장 오준혁)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및 제2회 송원대학교총장기 생활주짓수대회’를 개최했다.

송원대와 대한주짓수회는 지난 30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에는 대한체육회장기 및 송원대학교총장기 생활주짓수대회를 열었다.

송원대는 ▲지역 공공스포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지원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체육시설 서비

스 연계 협력 사업 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홍보마케팅을 위한 교류 ▲우호 증진 및 공동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약을 맺고 지역 스포츠 발전 계기를 만들었다.

협약 다음 날 개최된 대회에는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린 경쟁의 무대를 펼쳤다.

송원대 박경민 주짓수 감독은 “2023년 창단과 초대 대회를 통해 많은 선수가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대한주짓수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거점 주짓수 대표 대학으로 도약, 학교와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선수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ji@

7개국 350여명 참가...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료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여수 웅천해변문화공원에서 ‘제5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열렸다.

전남·부산·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여수 웅천마리나에서 출발해 통영 도남항을 거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수십 척의 요트가 폭빛 남해바다를 시원스레 누비며 경주를 펼쳤다.

전남·경남·부산을 하나로 잇는 올해 국제요트대회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7개국에서 총 24척의 요트와 35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가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세계 요트인을 위한 축제의 장인 이번 대회에서 7개국 요트인이 남해안의 눈부신 경관을 즐기면서

멋진 레이스를 펼쳤다”며 “남해안의 공동 개발을 위해 3개 시·도가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뒤 이곳 여수에서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섬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안권 상생발전 일환으로 2020년 이래 올해로 5회째 뜻을 올린 이 대회는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여수시, 통영시, 대한요트협회 후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피어오르다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일시 : 2024. 8. 16.(금) ~ 9. 15.(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